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여름동안 아침묵상을 쉬기로 했습니다. 아침묵상은 9월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름동안에도 여러분의 삶의 예배와 경건생활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지속됨으로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중보합니다.

3. 뉴저지 어머니 학교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오프라인 상에서 갖게 되는 뉴저지 어머니 학교를 가을에
저희 교회 건물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차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4. 운영위원회 모임

오늘 주일 애찬 후에 운영위원회 모임을 갖습니다.

지난 주 (7/2)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1,930.00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서경열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후 5:18-6:2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은혜로 붙들린 자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7월 16일	7월 23일
최은숙	유영환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아침묵상	(화-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인생이 헛헛하다고 느끼신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직후 소문은 바람을 타고 조용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진실과는 거리가 먼 범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자 정도로 오해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라는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관원이었으며, 산헤드린 공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온 것입니다.

유대 종교의 최고 지도자 반열에 올랐지만 무언가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큰 질문 하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보다도 한참이나 어린 청년 예수에게 그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선생이여)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을 통해 놀라운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더군요. 참 귀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예의와 격식과 품위가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찌보면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기 위한 가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는듯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묻지도 않은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바로 니고데모가 마음 깊이 품고 있던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의 해답이었습니다.

가진면 가질수록, 오르면 오를수록,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의 내면은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지 못해 헛헛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진리의 본질을 던져 버리신 겁니다.

“다시 시작해라. 거둬나라, 네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거 다 허상이다. 그러니 그거 내려놓고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양식, 이 물을 마셔라”

우리는 오늘도 대충 고쳐 쓰고 싶습니다. 도저히 버리기에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처방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다 버려! 다시 시작해!”